

② 國內景氣 低位 내지 平常維持가 고작

朴 贊 癸

〈中央大學校教授·經博〉

생각해야 할 前提

景氣를 말할때는 實質GNP 등으로 표시되는 생산과 고용의 동향을 중심으로 분석되는 경우와 附加價値와 관계되는 수익과 이윤에 관한 동향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 어느 쪽의 분석이 되었건 증가경향이 나타나면 景氣가 좋아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감소하든지 둔화경향이 나타나면 景氣가 나빠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景氣가 나빠진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도 일부 業種에서의 생산과 고용 그리고 수익과 이윤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가하면 그 반대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景氣에 대한 전망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여 理論的 展開에 의하면 물가가 安定되어 있고 고용이 一定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景氣는 上昇하는 것이 一般的이겠으나 昨今의 國內景氣에 대하여 樂觀的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或者는 輸出戰略商品의 보호무역정책에 따르는 수출의 부진과 그에 따르는 在庫의 증가 그리고 그로부터 派生되는 資金의 압박 등을 문제점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다른 側面에서는 總通貨(M₂)를 15%수준으로 동결하고 있는데다가 現金通貨(M₁)가 預金通貨보다 대단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면서도 資金의 획득이 어려운데서 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해석은 勞動生産性的의 향상과 기술의 향상으로 인하여 國內總生産은 증가하고 있으나 景氣浮揚策의 一環으로 施行되는 不動産投資(證券投資를 포함)나 消費促進策 등이 投機와 享樂産業의 變遷이라는 逆機能現象으로 나타날뿐 아니라 輸入自由化에 따르는 國內産業의 위축을 문제점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景氣란 분석하는 사람이나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때로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는 현상마저 景氣라는 해석을 붙일 수 있는 성격이 허다하다고 하겠다. 더욱이나 景氣動向을 설명하는 景氣指標의 변동도 指標計測에 이용되는 變數들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要因들을 景氣를 展望하기 위한 變數로 취할 것인가 그리고 景氣가 좋아진다는 것과 나빠진다는 것의 基準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關鍵이고 또 前提가 되지 않을 수 없다.

海外要因과 우리 經濟

國內景氣를 전망하는 변수, 즉 要因으로서 우리 經濟는 輸出主導型經濟라는 여건아래 海外要因이 중요한 변수로 作用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世界의 實質經濟成長率은 IMF 통계에 따르면

82~83년에 3% 정도를 나타냈으며 우리의 주요 무역국인 美國은 3~4%의 성장을 그리고 日本도 역시 3~4%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國內景氣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要因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國際的인 油價의 安定과 技術開發에 따르는 中間財의 價格이 82~83년 이후 계속 安定的인 下落勢를 나타낸다는 것도 우리 經濟에 대한 플러스的 要因이 된다고 하겠다.

그뿐 아니라 世界貿易量이 매년 6%포인트정도 增加하고 있으며 앞에서 지적한 바 있는 우리의 貿易相對國의 物價도 2~3%의 上昇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經濟外的 狀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우리의 輸出에는 다른 차질이 없다고 보아 이것 역시 바람직한 要因으로 지적될 수 있다.

우리의 經濟가 72년과 78년에 나타난 石油波動과 資源保護의 強化에 따르는 80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보듯이 급격한 世界資源市場에 변화가 온다면 앞으로의 國內景氣는 악화된다는 결론이 導出될 수 있으며 따라서 앞에서 지적한 많은 要因은 거꾸로 負的 要因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나 그동안 우리 經濟가 輸出主導型이기 때문에 나타난 構造的 特質은 이러한 危機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면 國內景氣를 전망

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며 海外要因의 변화가 關鍵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와 같은 논리를 받아 들인다는 假定아래서 長期的인 展望을 해 보면 急增하고 있는 工業開途國의 輸出競爭은 더욱 深化될 것이고 先進國들의 輸入政策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여 自國産業을 保護하고자 하는 힘이 크게 나타날 것이고 그에 따라 輸出量 增加의 폭은 鈍化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의 輸出도 1973년의 98.6%라는 증가를 고비로 하여 1976년의 51.8%, 1979년의 18.4% 그리고 1981년의 21.4%라는 減少傾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上記한 바와 같은 海外市場에 대처할 수 있는 限界에 놓여 있음을 實證하는 것이라 하겠다.

景氣指標上的 분석

우리는 實質 GNP와 관계되는 생산과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景氣指標를 분석함으로써 展望을 하게 된다. 물론 景氣指標에 나타나는 同行·先行·遲行指標가 어떤 변수를 대상으로 한 것인가라는 細部的인 논의도 發生할 수 있겠으나 景氣指標 作成方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季節的으로 特殊한 변화는 나타나다 하더라도 그 傾向은 계속해서 增加하고 있다.

즉 <表-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82년 2월에서 1984년 8월에 이르기까지 매월 先行指標에서는 0.1%포인트에서 1.9%포인트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同行指標에 있어서도 0.1%포인트에서 2.5%포인트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84년의 指標分析은 先行指標의 경우 1.5%, 0.1%, △0.3% 그리고 9월에는 △1.8%포인트로 급격히 下落하고 있으며 同行指標 역시 1.3%, 2.5%, 0.4% 그리고 9월에는 △0.2%포인트로 나타나 6월 이후 그 增加率이 둔화하다가 3/4분기 부터는 마이너스 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어 景氣上昇期에 나타나는 3/4분기 이후부터의 景氣指標의 增加傾向과는 反對의 현상이라고 볼 때 단순한 調整期로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고 본다.

景氣綜合指數(1980=100)

<表-1>

年度 月	1982		1983		1984	
	先行指標	同行指標	先行	同行	先行	同行
2月	108.2 (0.6)	103.6 (0.1)	118.3 (0.8)	110.1 (1.0)	128.5 (1.5)	121.5 (1.3)
5月	108.0 (1.0)	103.6 (△0.4)	122.4 (1.9)	113.1 (1.4)	130.0 (0.1)	124.1 (2.5)
8月	111.3 (1.1)	105.1 (0.4)	124.4 (0.1)	116.7 (0.7)	129.8 (△0.3)	124.8 (0.4)
11月	115.8 (1.1)	107.5 (0.9)	125.2 (0.7)	118.4 (0.7)	*128.0 (△1.8)	*124.6 (△0.2)

資料 :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註 : () 안은 增減率

*는 9월의 경기지표임.

建設受注額 및 建築面積

<表-4>

	수주액 (백만원)	연건평 (천㎡)
1982	3,933,993	29,798
1983	4,734,335	39,693
1/4	960,467	6,579
2/4	1,343,687	12,503
3/4	1,037,823	10,918
4/4	1,392,428	9,692
1984		
1/4	828,639	6,781
2/4	1,348,988	13,187
3/4	888,082	9,593

資料 :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있어 總國民生産이라는 측면에서는 85년도에도 커다란 변화는 없으리라는 評價도 있을 수 있겠으나 雇用이라는 또 다른 측면에서 분석해 본다면 고용의 둔화에서 오는 景氣의 鈍化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기를 설명해 주는 指標로서는 建築景氣를 들 수 있는 바 이는 重工業 및 電子産業들이 聯關效果가 높은 것과 같이 土木 및 각종 建築資材 生産業에 대한 聯關效果가 대단히 큰 것이기 때문이다. <表-4>에서 볼 것 같으면 受注額에서 82년의 3,933,993 백만원이 83년에는 13%가 증가한 4,734,335 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84년에 와서는 1/4 분기가 83년에 비하여 15%의 減少, 2/4 분기는

같고 3/4 분기에는 다시 15%의 감소로 나타나 建築業 및 그 聯關産業의 경기하강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建築面積에 있어서도 84년도에는 3/4 분기부터 갑자기 下降傾向을 나타내고 있어 全般的인 指標의 변화와 그 傾向을 같이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變數相互間의 분석

먼저 景氣에 관계되는 變數群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經濟成長은 製造業部門의 産業構造比重이 높으며 또 그 製品들에 의한 輸出 增大에 의해서 이룩된다고 보며 기타 建設업 등의 産出規模의 增大에 의해서도 이룩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産業生産에서 얻을 수 있는 景氣 要因으로서의 變數는 製造業生産과 建設業 그리고 運輸通信業을 생각할 수 있으며 資本投資의 측면에 있어서는 通貨量의 변동과 固定投資 및 기계설비투자를 變數로 취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有效需要의 媒介變數로서의 消費支出의 변화와 物價 및 고용이 하나의 變數가 될 수 있다. 물론 理論的으로 景氣指標를 作成하는데 필요로 하는 變數要因은 信用狀來到額, 銀行再割引率, 製造業在庫指數, 預金 및 貸付利率 등의 變數가 있으나 短期的인 景氣展望을 하는데 있어서의 統計的推論의 과정에서는 그 가운데 相互聯關이 되는 주요한 變數群만을 분석해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製品業種別 生産量

<表-5>

	1982	83/7月	83/10月	84/1月	84/4月	84/7月
생사 (kg)	1,968,923	169,779	150,105	153,913	147,442	152,327
혼합직물 (천㎡)	729,098	69,758	77,310	79,578	79,894	76,050
합판 (㎡)	1,338,964	113,097	107,783	96,316	92,161	85,976
PVC (%)	312,172	27,152	23,456	24,594	25,213	29,078
나프사 (KL)	3,139,937	345,539	336,793	433,111	420,649	367,141
동력펌프 (대)	664,573	76,564	80,732	64,940	96,506	108,846
칼라 TV (대)	2,189,549	331,589	385,990	331,580	385,354	377,283
승용차 (대)	98,751	8,765	13,072	10,180	16,771	13,051

資料 :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濟指標上의 분석에서는 85년도 경기가上昇하기는 어려운 要因 즉 成長의 負的 要因이 있음을 발견했다. 다시 말하면 上記한 製品에 있어서 鈍化減少하는 業種이나 鈍化上昇하는 모든 業種에 대하여 다같이 在庫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現在의 상황에 특별한 변동이 없다는 前提 아래 생각한다면 85년도의 製造業生産은 全般的으로 鈍化될 수 밖에 없으며 84년도 GNP 指標에서 나타난 傾向은 85년도까지 延長될 수 밖에 없다는 推論을 내릴 수 있다.

또한 變數相互間의 분석에서 吟味되어지는 것은 海外要因에서 負的方向으로의 展開가 계속 나타난다면 國內産業의 위축과 그로부터 派生되는 消費支出의 相對的 減少現象으로 表出되어 經濟循環에 연쇄반응을 일으킬 가능성도 排除할 수 없다는 可能性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볼때 다음과 같은 85년도의 景氣에 대한 趨勢의 展望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産業活動의 展望

산업생산활동은 84년 4/4 분기의 실적이 중요한 전망변수가 되겠으나 國內外要因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海外要因은 특별한 변화가 없으며 國內要因으로서는 秋穀의 增收, 輸出과 內需를 위한 製造業生産의 활발 등으로 최고의 增加率이 농림·수산부문, 광업 및 제조업부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운수·기타는 平常的인 증가요인밖에 없고

國內總生産의 推移展望 (단위: %)

	84		85		
	4/4	1/4	2/4	3/4	4/4
농림·수산	10.0	5.0	△2.0	5.0	5.0
광업	10.0	10.0	5.0	5.0	10.0
제조업	10.0	5.0	5.0	5.0	10.0
사회간접(건설)	△5.0	5.0	2.0	5.0	2.0
운수·기타	5.0	5.0	5.0	5.0	5.0
서비스	2.0	2.0	2.0	2.0	2.0
평균	5.7	5.28	3.5	4.57	6.28

註: 증가단위 부여는 다음에 의함. 低成長 2.0, 平常成長 5.0, 高成長 10.0 감소의 경우는 이에 준함.

서비스는 경기의 불투명으로 인해 저위의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건설의 경우는 中位의 저락을 한다고 보아 84년 3/4 분기와 거의 같은 5.7%의 成長밖에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제 아래 85년도의 변수를 4/4 분기에 가서 비로소 정돈과 새로운 산업활동을 위한 여건이 변화한다고 볼때 <表-7>에서와 같은 국내총생산 增加率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제측에서 平均增加率은 제조업의 비중을 2단위로 하여 5.28%, 3.5%, 4.57% 그리고 4/4 분기는 6.28%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결국 이러한 제측은 上下 5~10%의 오차는 수반한다고 보아 85년도의 국내총생산의 增加率은 5~5.5% 수준이 될 것이고 산업활동의 급격한 好轉이 이룩된다면 6~6.5%의 증가 그리고 반대로 여건이 惡化된다면 4~4.5%의 성장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 其他部門의 活動展望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은 産業生産이 나타난다고 볼때 종교정투자의 증가 역시 低位 내지는 平常的인 증가밖에 이루어질 수 없고 수출 역시 企業의 체질개선과 해외시장활동의 적극성이 주어질 것으로 보는 85년 4/4 분기가 될때까지는 低位 내지는 平常的인 증가밖에 기대할 수 없어 85년도 輸出目標의 책정도 300억 불이상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근래 기업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財政金融部門에서의 긴축정책의 계속적인 시행은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킬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즉 産業生産活動의 위축에 따르는 企業利潤의 確保가 勞動者의 감축으로 나타난다면 民間消費의 擴大에 의한 需要創出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은 곧바로 다시 生産部門에 영향을 미쳐 景氣의 調整期가 아닌 下落期로 나타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景氣沈滯라는 늪으로 빠져들지도 모르기 때문에 投資意慾이 提高될 수 있는 정책과 그에 부응하는 기업활동이 나타나야 할 것으로 본다. ♣